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53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91)	봉헌 (215)	성체 (498)	파견 (437)
---------	---------	----------	----------	----------

제1독서 | 이사 2,1-5

화 답 송 | 시편 122(121),1-2.4-5.6-7.8-9(◎ 1 참조)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 하리라. 너의 성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너의 궁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

제2독서 | 로마 13,11-14 ㄱ

복음환호송 | 시편 85(84),8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 음 | 마태 24,37-44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17	이 그레이스	고 안나	박 다니엘
11/24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1	유 요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2/8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40	\$	\$22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2/7	김 마론/ 김 헬레나	1/11	유 요한/ 유 마리아
12/14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18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2/21	손 아놀드/ 손 쟈마	1/25	홍 마르코/ 홍 아네스
12/2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2/1	김 요아킴/ 고 안나
1/4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행복의 기준

-양상윤 빈첸시오 신부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전교회(중화관구)-

제가 대만으로 와서 처음 지내기 시작한 곳은 남쪽에 있는 ‘타이난’이라는 도시입니다. 대만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고 가장 오래된 도시로 과거 통치 중심지였던 것에 비하면 현재는 상대적으로 그 위상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약 190만명의 인구가 있는 대만의 6대 직할시 중 한 도시입니다.

새로운 곳에 도착했으니 당연히 많은 것들이 새롭고 신기했는데 그중 하나가 타이난 도로에는 좌회전과 유턴 신호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도원에서 시내 중심을 거쳐 어학원까지 거의 왕복 한 시간 이상 자전거를 이용했는데 제가 늘 다니던 도로에는 좌회전 신호와 유턴 표지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로에서 좌회전과 유턴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녹색 직진 신호 시 어느 곳에서나 비보호 좌회전과 유턴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체계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불합리한 교통 체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쪽이 녹색 신호라면 보통은 반대편 차선도 녹색 신호이고 또한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 방향의 차들 그리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들과 함께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럴 경우의 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은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제가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교통사고를 목격한 것은 가벼운 접촉사고 몇 번이 전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보기에 상당히 위험한 교통 체계를 가지고도 생각보다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12월 5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시

다음 임원회의는 1월 5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에페소서): 매주 주일미사 후 (둘째 주 제외)

매주 미사후 친교실에서 성경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남가주 성당 대림 판공성사 일정

12/10(화)바실성당, 12/12(목)성삼 성당, 12/16(월)성토마스 성당

12/17(화)성바오로 성당, 12/18(수)성마태오 성당,

12/19(목)백삼위 성당, 12/20(금)성아그네스 성당.

우리 성당에서는 이번 대림특강 초청강사 신부님은 없습니다.

우리 성당은 수요일 제외한 모든날 미사 30분 전에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Virgen de Guadalupe Celebration

December 11-12, 2019. It will begin with Mass on

Wednesday December 11, 2019 at 10:30pm and

Mass on Thursday December 12, 2019 at 7:00pm.

어린이 성가대 성탄 공연: (Dec 13<sup>th</sup> at 6:00pm \$10.00)

18세 미만은 무료입장 입니다.

이곳 사람들의 여유 있고 양보할 줄 아는 운전 습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출발하고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준비하고 있는 차를 보면 나에게 우선권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쉽게 양보할 줄도 압니다.

아마도 이런 운전 습관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나게 불합리하고 위험한 교통체계이면서도 사고율이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통 체계도 중요하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안전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치자면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남에게 받을 때가 줄 때보다 더 행복해야 하지만 때론 받을 때 보다 줄 때 더 행복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성’이나 ‘합리성’을 따지지 말고 그보다 먼저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일입니다. 특히나 우리들은 신앙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의 기준은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진실되이 물어봅시다.